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
主幹 宋赫
編輯部長 文孝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 東大新聞
電話 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2學期 學事日程 發表

8月23日 開學

受講申請 26日부터 3日間 登錄

6월28일부터 시작된 學期末考査가 10일 모두 끝남에 따라 캠퍼스는 夏季放學에 들어갔다。敎務處는 放學에 따른 學事日程을 발표하고 日程에 차질이 없기를 광부하고 있다。一學期開學은 8월23일(月)이며 이날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수강신청카드를 교부받아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서 敎務課에 접수해야 한다。한편 登錄金納付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며 開講은 9월6일부터인데 이날부터 2學期강의가 시작된다。

學生들은 放學中 奉仕活動이나 修錬大會에 참가하는 國體生活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서와 여행계획, 전공분야에의 매진, 「아르바이트」 등의 부푼계획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 갔다。

奉仕活動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총3백11명으로 10個部隊로 편성, 지난 13일 發國式을 갖고 奉仕地로 떠났다。

學徒護國團 幹部修錬大會가 雪嶽山과 洛山夏季修錬場에서 13일부터 18일까지, 敎養學部大隊 幹部修錬大會가 15일부터 21일까지 역시 같은 코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섬부부가 洛山修錬場에서 수련대회를가졌다。

또한 女學生大隊 차기幹部후보 6명이 20일부터 22일까지 어군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

방학중 도서관 열람실은 평소와 같이 운영되나 도서대출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제한했다。

釋林會 순회布敎 16個都市서實施

한도호국단 총교부 釋林會(회장=崔玄覺·僧伽4)의 全國순회布敎團 發國式이 지난 13日 大韓佛敎총무원 釋林會員 1·2진 각 7名씩 14名이 法師로 참석하여 지난 14日 忠州 金剛寺에서 그 첫 法會를 열었다。

금년으로 5번째맞는 釋林會의 이번 순회포교는 總務院의 후원으로 충주, 청주등 전국 16개 都市에서 8월1일까지 19일간 순회포교를 마치는 오는 8月1日에는 조계사 法堂에서 回向法會와 解團式을 가질 예정이다。

ROTC兵營訓錬 9月4日까지계속

ROTC 夏期兵營訓錬이 오는 8월9일부터 9월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사단에서 실시된다。

1·2年次 전원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훈련은 일반화기전술등 군사학전반에 관해 초급지휘관으로서의소양을 쌓기위한 訓錬을 받게된다。

夏季洞窟探險 東大洞窟등對象

洞窟探險硏究會(회장=심상돈·농학3)의 夏季洞窟探險이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영주·육백산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있다。平昌 고마루골의완전탐험과 옥계면 순地域의속초측 양도작성및 육백산지구 정찰탐험, 그리고 강동면·전지역 정찰탐험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 탐험에는 10명의 대원이 참가, 범능동굴, 영월동, 東大동굴등의 洞窟을 探査하게된다。

한편 이에앞서 13일에는 江原道平昌郡美淵面에서 석회암동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따라 정찰조 2명이 探査를 위해 출발했다。

夏季奉仕活動展開

10個 部隊 3百11名 參加

지역사회개발과 대학생의 奉仕精神및 協同精神을 배양하기 위한 夏季農漁村奉仕活動이 본교에서는 10개 부대(8개처를)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다。

이번 농어촌봉사활동은 지난 15일, 奉仕地로떠난 제5, 6, 7부대(長所)를 필두로 8월2일까지 忠南당진군 순성면 육호리 산수동등15개부락에서실시된다。

이들 각부대의 奉仕活動에는 봉사대원외에, 指導敎授가 1명씩참가, 직접 봉사활동을 지휘하고 있다。

올해 하계봉사활동에는 남학생 2백23명, 여학생 88명등 총3백11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 숫자는 작년의 남학생 3백21명, 여학생 99명 총 4백20명에 비하여 약 1백여명이 적은 숫자이다。

봉사대원들은 奉仕地 부락민을 부녀반, 아동반, 4H반등으로 나누어 敎育奉仕와 소득증미사업, 生活改善事業, 청소년지도, 근로봉사및 安保講座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13일에는 奉仕地로 떠나기에 앞서 하계봉사대발단식이 李瑄根총장을 비롯, 각學處長및 봉사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本部건물앞에서 거행되었다。

본교에서는 하계봉사활동을 위해 文敎部로부터 책자를 비롯한 物品및 보조비 34만원을 지원받았다。

다음은 各部隊別 참가인원, 奉仕地, 봉사기간및 事業內容이다。

▲제1부대(P·T·P, 지도교수=창용철, 대표=이윤호·경행3)는 대원40명(남=28, 여=12)이 7월10일~29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예동 구사리에서 근로봉사, 아동반교육및 부녀반 가내부업등을지도。

▲제2부대(쉼은 새이웃, 지도교수=신호선, 대표=민해·국교3)는 대원51명(남=39, 여=12)이 7월25일~8월2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식동 1리·2리에서 매미학교개설, 노력봉사, 가내부업및 체육대회개최등。

▲제3部隊(길, 지도교수=전영화, 대표=박표호)는 30명(남=22, 여=8)이 7월20일~30일에 걸쳐 충북 진군 동동15개부락에서실시된다。

이들 각부대의 奉仕活動에는 봉사대원외에, 指導敎授가 1명씩참가, 직접 봉사활동을 지휘하고 있다。

▲제4部隊(E·L·F, 지도교수=형기주·박재현, 대표=남기황·수교3)는 대원40명(남=26, 여=14)이 7월24~8월2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대의면 계수1리·2리에서 아동반 교육, 4-H활동 지도, 근로봉사를 벌인다。

▲第5部隊(농연, 지도교수=이형등, 대표=조용수)는 19명(남=15, 여=4)이 7월15일~24일까지 충남 당진군 순성면 육호리 산수동에서 농사기술지도, 근로봉사및 농사기술보급, 야학지도。

▲第6部隊(농연, 지도교수=김희곤, 대표=이인원)는 대원19명(남=15, 여=4)이 7월15~24일에 걸쳐 충남 당진군 순성면 원옥호리에서 근로봉사, 4-H반 지도, 계일지도。

▲第7部隊(농연, 지도교수=김홍배·이상석, 대표=이형균)는 대원19명(남=15, 여=4)이 7월15일~24일까지 충남당진군순성면 갈산리에서 농사기술보급및병충해구제등의 위생봉사활동하고 근로봉사와 야학등。

▲第8部隊(유네스코학생회, 지도교수=정윤무·김병수, 대표=김태숙)는 대원42명(남=31, 여=11)이 7월19일~25일까지 강원도영월군주천면 관운4리 중석부락·입석부락에서 위생소독과 안보강좌등의 정신교육에 주력。

▲第9部隊(MRA, 지도교수=김한종, 대표=최상기·김찬, 여=14)는 대원20~33명(남19, 여=14)이 7월20~29일까지 전북 부안군 행안면 계화·계주부락에서 부녀반, 아동반지도와 정신계몽및 올바른 국가관조성에주력。

▲第10部隊(불교학생회, 지도교수=목정배, 대표=김영헌)는 대원20명(남=15, 여=5)이 7월18일~25일까지 전북 정읍군 내장면 서고부락에서 근로봉사와 佛陀의 말씀을 전하는 法會, 퇴비증산, 굴뚝개조, 家族계획 계몽, 對民奉仕및 종교실태調査등。

李瑄根總長은 8월4일부터 美國워싱톤에서 개최되는 제25차 世界敎職者團體總聯合(WCOTP) 대의원총회에 韓國代表로 참석하기 위하여 오는 29일 空路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世界70여개국에서 4백여명의 대표가 모여 「세계공동체를 위한 교육」을 主題로 논의를 하게 된다。

또한 李總長은 8월3일부터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30차 아시아·아프리카 人文社會科學者會議에 韓國代表로 참석하여 「四子修好條約과 韓國民의 反應」을 주제로 發表를할 계획이다。또한 李總長은 8월22일부터 28일 시이에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되는 제42차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총회에 연맹본부中期開發委員會에 대한 검토를 하기위해 한국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李總長29日渡美

世界敎職者大會등 代表로

◇崔載九國長

崔載九문공회장이 韓國선수단장으로, 金漢善등무이여자 배구 코치로, 金益鍾등문이 레슬링 그레꼬·로망型 코치로 現地에가 있고 選手로는 黃哲淳체꼬·1·웰터級, 金貞喆체꼬·1·플라이級 두선수가 권투에, 李貞昌(체꼬·3·그레꼬로망型·플라이級), 金和經(自由型·주니어플라이級) 同門安煥泳(그레꼬·로망型·밴텀級), 同門柳在福(自由型·웰터級) 同門이 레슬링에 출전하고 있다。

崔載九단장은 올림픽대표선수단 결단식에서 답사를 통해 「금번 올림픽에서의한국선수단의 사명은 그 어느대회 때보다 막중하다는 결 인식하고 그동안 쌓아온 선수들의 고된 훈련이 값진 영광으로 결실되도록 선수단전원이 선전분투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나타냈다。

이번 몬트리올·五輪에 출전한 본교 선수들은 5일 오전 李總長을 방문하고 出戰신고식을 가졌으며 李總長은 선수들에게 全 東國人은 물론 국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필승을 거두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투출라이급에 출전하고 있는 金貞喆선수는 19일새벽(韓국시간)에 열린 1회전경기에서 태국의 솜차이·푸타파바트선수를 맞아 긴리치를 이용한 정확한 펀치를 작렬시켜 일방수의 기량을 높이사고있다。

黃哲淳、金貞喆 2회전 進出

복싱·레슬링等 메달 有望種에

본교 재학생및 同門9명이 지난18일 개막된 제21회 몬트리올 五輪에 참가하고 있다。

黃哲淳선수는 웰터級 2회전에 진출했다。

이어서 벌어진 黃哲淳과 그리이스의 티나시오스·올리아라스와의 경기도 테크닉이 탁월한 黃哲淳선수가 심판전원 일치의 판정승을 거뒀다。

黃哲淳 선수는 저득적인 아티나시오스의 공격을 원투로 견제하면서 현점을과고드는 날카로운 펀치로 시종압도했다。

이로서 본교 출전선수 모두 메달을 향해 한걸음 옮겨섰는데 현지에서는 黃哲淳선수의 기량을 높이사고있다。

護國團發團 1周年

李總長 花郎精神 계승강조

學徒護國團發團 1주년기념식이 지난달25일 오전10시 중앙청에서 李瑄根總長을 비롯, 各學處長 敎職員 學生多數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三歸依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에서 蔣東沛國長은 기념사를 통해 「國民人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절감하고 배우면서 지키는 大學生活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전 동국인은 힘을모아 부단히 매진할것」을 촉구했다。

李瑄根總長은 격려사에서 「學徒護國團이 發團된것은 우리나라가 處하고있는 地政學的인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매우 잡이 없지않다는 것은 「花郎精神」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고 「三國을統一할 수 있었던 意志도 護國精神과 이를 바탕으로 성장된 花郎徒가 그 主役이었다」며 本校學徒護國團이 「새로운 歷史創造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또한 宗敎部 合唱團 여명이 學徒護國團歌를 合唱하고 學徒護國團發團 周年을 맞는 금년 決意를 다짐했다。

實驗實習器材 도입

AID차관 5萬弗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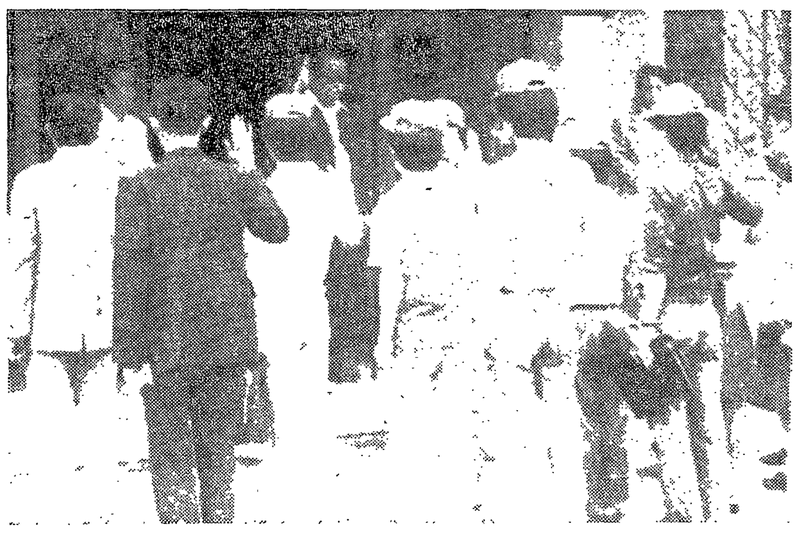
東國學院은 지난 6월26일 열린 理事會에서 文理科大學 理科系 敎授, 學生의 실험실습用器材導入을승인했다。

AID차관으로 도입하여 5개계획으로 반제될 예정인 이 기재의 도입비용은 EPR Dual Delay Generator 등인데 모두 4만6천6백46불로써 상당하는 것으로 他大學과의 치열한 경쟁끝에 本校에 도입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文理科大學의 物理學科, 化學科와 工大 관련학과의 실험실습에 원활을 기하게 됐다。

護國團幹部 修錬大會

第2回 雪嶽山등지서 盛了



◇夏季農漁村奉仕團 發國式이 本部建物앞에서 거행되었다。

第2회 본교 學徒護國團 幹部修錬大會가 內外雪嶽山과 낙산 夏季修錬場에서 13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이번 修錬大會는 장동박 사단장을 비롯한 현 흑국단 간부 18명과 각 大學長이 추천한 차기 간부부부 33명등 모두 50명이 참가했다。

13일 오전 본교를 출발한 修錬大會團은 雨中의 나깐 일기에도 불구하고 백담사, 영시암, 관음폭, 쌍용폭, 소청봉, 대청봉등을 차례로 정복하여 16일엔 雪岳山을 완전 정복했다。

흑국단 간부들의 자질을 높이고 지도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 수련대회는 17일에는 낙산 본교 夏季修錬場에서 해양훈련을 마친뒤 18일오후5시 歸校했다。

학도호국단의 이번 수련대회는 동산엔 趙旺基(經商大)·金長好(師大) 교수와 朴在愚(學生課) 지도주임이 지도를맡고 洛山 夏季別莊에서는 金仁鴻교무처장, 鄭允武학생처장, 羅彥杓학생과장등이 지도에 임했다。

崇政殿 上樑式

崇政殿 移轉復元工事 上樑式이 지난 12일 오후3시 공사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상량식에는 李瑄根총장, 尹月下理事長, 各學處長, 서울特別市기획관리실장 등 내외귀빈 50여명이 참석했는데, 朴聖昊經理課長의 祝願文낭독, 상량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崇政殿은 서울시지정 지방문화재로 서울시와 共同으로 가칭 예정이다。

學生課長 羅彥杓씨 體育課長 金漢宗씨

학교당국에서는 學生課長과 體育指導課長을 교체발령했다。

학생과장에는 羅彥杓前체육지도과장이 체육지도과장에는 金漢宗 前학생과장이 각각 7일자로임명되었다。

敎養學部大隊도 修錬大會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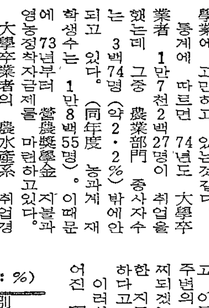
學徒護國團 敎養學部大隊 幹部수련대회가 지난7월 1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內外雪嶽및 본교洛山夏季修錬場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대회는 ①집단수련을 통해 信賞한 화합정신을 기르고 ②勇猛精進의 배우면서 싸우는 護國學生像의 구현을위해 개최된 수련대회는 ①집단수련을 통해 信賞한 화합정신을 기르고 ②勇猛精進의 배우면서 싸우는 護國學生像의 구현을위해 개최된 이번

農大生의 進路와 意識構造

農大生의 意識構造와 進路에 관한 調査研究에서

李秉東教授



다음 글은 「東國農林」第9輯에실린 李秉東(農大農經科·農博) 敎授의 「農大生의 進路에관한 調査硏究」論文을 간추린것이다. 이 조사는 農科系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기초 문제의 共通點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意識構造를 파악 하는데 目的을 두고있다. 지난해 9월 本校 農經科 3年生의 統計論調査實習을겸하여 실시된 이 조사는 本校 農大生(2~4學年)에게 「진로에 관한질문」 14개항과 「응답자의 인적사항 질문」 4개항등 18개항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1百35명으로부터 회수한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는 一般능대생 전체의 의견은 아닐지라도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編輯者 註>

1. 農大生의 意識狀態

大學街가 安定期에 접어든 75년 후반기부터 學生들은 自己充實化의 강한 慾求와 勉學으로, 지난 15년간 大學生들의 現實參與問題로 인한 品位低下라는 사회적 힐난에서 스스로 救濟하고 進路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周邊事情의 변화에 따라 農大生들은 새로운 욕구불만에 사로잡혀 가는듯하다.

첫째, 産業의 發達과 技術開發이 빠르게 비해 大學의 학문이 經濟發展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 農業部門의 산업이 製造業이나 商業部門에 비해 발달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 農業部門 취업보수가 낮다는것.

네째, 農大生의 약 70%이상이 成長환경에서 얻은 가치관에 젖어있다는 것.

다섯째, 졸업후의 취업문이 좁다는 것.

여섯째, 農業經營이나 농업전문적의 종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 등등의 이유로 進路決定과 현재의 學業에 고민하고 있는것같다.

통계에 따르면 74년도 大學卒業者 1만7천2백27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중 農業部門 종사자수는 3백74명(약 2.2%)밖에 안되고 있다. (同年度 농과계 재학생수는 1만8백55명). 이때문에 73년부터 營農奬學金 지불과 영농정착금제를 마련하고있다.

大學卒業者의 農水産系 취업경향은 우리나라만이아니고 日本에서는더낮은 비율(短期大學 II·5%, 대학 II 0.7%)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農林系를 지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農大입학 당시에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54%(表1)의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있는듯 하다. 이에 현상은 저학년일수록 더욱 심하다.

어쨌든 농대생의 과반수 이상이 스스로 專攻系列을 선택했고 졸업후의 진로도 미리 예측했다니 다행이지만 나머지46% 農大生들은 사람이란 반드시 로고스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완성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2. 農大生의 意識構造와 屬性

(1) 學業과 適性

成就動機를 이루는 現象心理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學業生活이 進路와 관련되는지 생각하느냐?」 를질문해보았다.

①꼭 부합된다고 생각한다(16.3%), ②약연하나마 부합될 것으로 생각한다(31.1%), ③그냥 학업을 계속해보는이다(35.6%), ④전혀 부합되지 않는다(17.0%).

말하자면 日曜意識이 뚜렷하지 않은채 學業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이 53%나 되고 있다.

農業分野를 중심으로 한 社會의 주체가 될 大學生이 목적과 계획을 결여한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자신에 대하여 해서는 장차의 자립성과 관계되고 이들이 社會構造가 개발이 주변의 정신적 물질적 개발이 되지겠는가를 생각하면 이들에대한 지도와 變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農大生의 意識構造를 어린 現在의 상태에서 선별성을 보여주는 「現在의 學業이 진로와 계열에 전과하고 질문에 있어서 「이는다면?」 ①바른 계열에 있는다고 응답한 58%가 먼저 學業을 계속하는 쉽이 진로와 自己意識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다. (25.4%) 이것은 全體應答者의 80%(1백14명)가 自己矛盾을 가지고 있는 셈이며 그 중 科系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32.5%, ②일치하지 않으나 그대로 계속하고 싶다(42.1%) ③도저히 일치하지 않으나 다른 方法이 없어 고민이다. (25.4%)

「M·하이덱거」

存在와 時間

世界名著散策 (12)

철저한 人間形而上學

「죽음의 哲學」體系的으로 展開

戰後의 狀況, 沈默과 思索으로

鄭璡 <佛敎大敎授·哲博>

1

불안과 죽음과 無와 존재의 철학자 Heidegger는 主著의 제2편 제1장제52절에서 인간존재 곧 현존재의 중국으로서의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자기적인 (곧 본래적인) 다능 존재자와는 올 교섭한, 확실한, 그리고 언제올까 모르는 곧그피한 것으로서 부정한 (곧 무규정적인) 넘어설수 없는 가능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의 죽음에대한 실존론적-존재론적 개념은 이를 확실성과 무규정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할수 있다는 것이다. 곧 『죽음은 확실히 찾아온다. 하지만 당분간은 오지않는다』

이와같이 「세상사람」 들은 「죽음은모든 瞬間에 可能하다고 하는」 죽음의 確實性의 특질을 곧이 隱蔽해버린다. 그런데 죽음의 確實性과 죽음의 「언제가 될지?」의 無規定性과는 밀착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죽음의 가장 自己的인 可能性의 性格 곧 確實하면서도 無規定한, 곧 뛰어넘을 수 없는 性格이 日常性 속에서 隱蔽되어있다」라고 Heidegger는 말한다. 日常性 속의 「세상 사람들」은 이 엄연한 죽음의 사실앞에서 눈을 가리우거나 도피하려고 한다는 倫理的·批判이다.

다시 말하면 현존재는 그가 실존하는 한 사실적으로 죽는 죽음을 향하여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는 頹落 (Verfallen) 이라고 하는 그릇된 방식, 곧죽음을 隱蔽하려고 하는방식에 있어서 죽음을 향하고있는 것이다. 세계내부에서 여러 모든 만나는 존재들들에 끼어 頹落的으로 존재함으로써 어떤지 기분이 섞좋지 않은 고향상실성으로부터의 도피 곧 죽음에의 가장 자기적인 존재에 대한 실존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것이 「세상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頹落한 존재방식이라고 고발하는 것이다.

그리나 죽음의 實存的인 自覺이야말로 人間의 自己存在를 全體的-本來的 (곧 根源的) 으로 부각시키는 根據인 것이며, 그 가장 自己的인 存在可能에 눈을 들 때, 現存在는 참된 自己로서 존재할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죽음을 깨달은 이와 그렇지못한 이의 차이 속에서 現存在의 本來의 모습과 頹落한 모습 곧 「세상사람」과를 구별 할 수 있다. 現存在의 존재는 확실히 未完結이긴 하지만, 그러나 他者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때 얼마나 죽음이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을 엄습해 오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죽음이 現存在의 各自性과 實存에 얼마나 깊게 뿌리를 박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서, 그처럼 특이하고도 진지하게 죽음의 哲學을 일궈기 그 유리가 없을 만큼 체계적으로 전개했던 마르그 하이덱거가 지난 5월26일에 세상사람들과 영원히 작별했다.

죽음과 不安과 無의 戰慄 아닌 超克을위한 1大 전환기적 고뇌의 哲學이 豫言한대로, 그리나 말음과 화희에의 아무런 조짐도 희망도 보이지않는 21세기말적 深夜를 남겨둔채 가버린것이다. 전환기의 哲學은, 노상 전환기적 초극을 위한 것이언만 이렇다할 局面전환의 기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20세기적인 역사적 현실과 밀착된 그런 生涯가 Jaspers와 Russell에 뒤이어고 요히 막을 내린것이다.

2

1차대전엔 25歲로 學位를 받았고, 그 다음해인 75년엔 대학 강사 자격시험을 위한 處女 강의를 했고, 거의 같은 시기에 私講師 취직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結語의 章을 새로 넣어 그 다음해에 上梓했으니 27세의 일이다. 新칸트學派의 젊은 旗手였던 에밀 라스크 (1878~1915) 는 강단을 뒤로 하고 조국방위에 나서 散華하고 야스퍼스 (1883~1969) 는 病弱으로 出征못하는 피트움 속에서 精神병리학으로부터 철학에로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던 이 미중유의 격동기에 하이덱거는 그 선천적인 詩人的 감각과 철학자다운 예지로 戰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戰後가 취들고 올 새로운 역사적인 국면에 대하여 조용히 생각해보고 있었다.

前記의 私講師 취직 논문을 마지막으로 Heidegger講師는 침묵속으로 들어가면서 피나는 노력을 그레시아의 自然哲學者들부터 모교에서 가까이 모시던 Husserl (1859~1938) 에 이르는 근대속의 哲學思想 全般을 進體驗함과 아울러 역사적 연구에 온통 쏟았다. 그의 스승였고 속기에 힘입은 바 큰 Rickert (1863~1936) 的 認識論과 그 思想的 根源인 Kant를 Aristoteles 的 第1哲學·形而上學·存在論이라고 하는 그레시아 이래의 전통철學의 主流에서 발견하고 또 그를 대답하게 形而上學者로 규정하는 논박토론 해석이 여기 젊은 Aristoteles學者에 의하여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의 主著 〈산토와 形而上學의 問題〉 (1929) 는 그 증거).

1923년, 그리나까 그가 34세에 Marburg 대학의 교수로 취임했을 때 戰後의 混迷와 교수로 지명받기 전 그는 稀世地를 뒤덮고 있었다. 6년뒤에는 의 정치감각 Hitler가 망명 제2당으로 진출할만큼, 세상은 변하고있었다. Heidegger의 깊은 침묵과 계속 사색은 10유여년에 걸쳐 계속되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詩人이 아니면 哲學者가 되어야만 했다. 1953년부터 60년에 이르는 韓國動亂의 아프레·젤 경험한 韓國人이라면 大戰後의 도이취의 알맞은 절망적인 분위기에 대강 짐작이 갈 것이 아닌가. 精神的 故鄕을 상실한 역사이래의 혼란과 방황과 실의 속에서 뜻있는 이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이면 것, 그것은 결코 개별적 사유나 자연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하여서는 포착할 도리가없는 氣分 (Stimmung) 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재래의 哲學的 입장에서 무한히 無意味하다고만 치워서는 안될 그러한 것으로서 반드시 詩人的인 體驗을 통하여 直視되고 숯人的인 體驗에 의하여 이해되거나 悟得되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

그것을 젊은 哲學者 Heidegger 는 不安 (Angst) 이라고 했다. 不安은 공포와는 달라서 일정한 대상이라는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이 아니다. 그것은 느끼는 이에게만 있다. 그래서 『어떤지 不安하다』라고 이를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분이 섞좋지 않은 것 (Unheimlich) 을 촉발할 척도는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없는것이냐는 그건 있다. 태양을본듯 뚜렷하다. 이는 그 正體를 밝히냐야 한다. 무섭다고 달아나기만 하면 더욱 뒤쫓아오는파워가 바로기것이다. 不安은 根源的인 의미가 있다. Heidegger의 哲學에 있어서의 죽음의 主題는 그 한 기대속에서 살아온 도이취 만이 또 그 螢光이었는데, 지금 그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용기를 잃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더 큰 절망이 아닐수 없었기에 그것은로부터 Heidegger는 이를 위하여 存在의 存在者 (存在物, 存在事物, 삶라만상) 를 일일히 구별하고, 存在者로 하여금 存在 (Sein) 을 바탕 存在者의 (그) 存在는 뿐 아니라 『存在一般』 또는 『存在 그自體』를 그것이 자만게 있어서 포착하여 보려고 하는것이다.

그는 철학이 그 첫달부터 즐기차게 물어온 『존재의 의미』를 (그것이 자만게 하기때문에 오히려 불문에 부쳐 오기 일쑤였던 이른바 「존재망각」이라고 하는 근본 경험) 에 입각하여) 아주 새로운 視角에서 문제 삼음으로써 『존재일반의 의미』를 밝히는 존재론의 수립 곧새로운 형이상학의 부흥에 기여를해보자는데 그 첫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그는 방정에 『존재일반의 의미』의 전면적인 해명에 나서려는 것이아니고 「방정」은 『존재의 의미에의 물음』을 묻는 올바른 물음의 방식이고 전개함으로써 地平 (視域) 을 개척하는일』을 뜻한것은 사실이지만 제1卷에 뒤이어 續卷을 내놓겠다던 約束을 끝내 저버린 이면의 이유 속에는, 1927년의 出刊 이후의 도이취및 전 유럽의 역사상 경황의 저자 자신의 심경이나 사계에 있어서의 변화 또는 유럽의 정신세 위기 등의 危機意識의 高調와 그 반영이라고 하는 갖가지 조건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 경기대회와 「아리아나」 대회에서 각각 銅메달을 딴 실적이 있는 柳在權선수는 떠나 기 전 『4백여일간의 强訓과 佛岩山까지 오르내리는 훈련에 신념과 집념을 가지고 메달권에 대한 可能性을 비춰주는 溫情公社에 소속돼 있다』

또 「J·플라이」급에 출전중인 李寶昌선수는 73年부터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경험을 갖고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全安漢泳선수는 74年아시아경기에서 銀메달을 획득한 베테랑이다.

그리고 그레꼬 로만형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金益鍾등은 『光體力, 後 技術로 어느때는도 精銳化 되어있다』고 강조하고 『母校와 대표팀』 이 同窓會의 후원에 감사한다는 아울러 우리 모두의 所望인 金메달의 기대를 안고 출전한 이들에게 훌륭한 成果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계기로 「東國體育」의 중흥을 이뤄야 할것이다.

〈南相均記者〉

◇奈陵選手村을 방문한 등창회장단과 함께.

◇金和經

◇柳在權

◇安漢泳

◇李寶昌

◇黃哲浮

◇金貞話

◇金益鍾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지난 17일부터 제21회 하계올림픽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대회를 위해 韓國도 엄격한 선발을거친 소수정예 부대를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큰 룩을 담당하고있는 것이 우리東國人들.

이에 지난 2일, 이번과 견선수단장으로 결정된 崔載九동창회장이 등창회관계 인사들과 태능선수촌을 방문하고 금일부터 전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최회장은 「몬교올 신들의 대건승전은 東大로서는경사이며 이선수들에 의해 한국의 권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東國과 祖國의 명예를걸고 선전분투하고 있는 선수·임원들에게 인사들과 태능선수촌을 방문하고 금일부터 전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최회장은 「몬교올 신들의 대건승전은 東大로서는경사이며 이선수들에 의해 한국의 권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東國과 祖國의 명예를걸고 선전분투하고 있는 선수·임원들에게 金貞話(경영1·플라이급), 黃哲浮(경영1·밴텀급), 레슬링 黃哲浮(경영1·밴텀급), 레슬링 자유형에 金和經(경·貿易·J플라이급), 柳在權(경·경영·웰트급), 그레꼬·로만형에 李寶昌(體育·J플라이급), 安漢泳(경·74체꼬·밴텀급), 그레꼬·로만형코치에 金益鍾(66·經濟)、李子非(球技)등에 金溪善(58·경제)등 모두 9명이다. 최재구선수단장은 「특히 한국의 메달박스로 불리고 있는 복싱에는 6체급중 2체급에 金·黃 두선수가 각각 출전하고 있다. 이미 19일의 1차전에서 태국의 「솔타이」선수를 초반부터맹공, 심판 전원일치의 판정승을거두어 호조의 스타트를 끊는 金貞話선수는 지난 4월의선발전에서 劉沃均선수에게敗해 상처에 金益鍾(66·經濟)、李子非(球技)등에 金溪善(58·경제)등 모두 9명이다. 최재구선수단장은 「특히 한국의 메달박스로 불리고 있는 복싱에는 6체급중 2체급에 金·黃 두선수가 각각 출전하고 있다. 이미 19일의 1차전에서 태국의 「솔타이」선수를 초반부터맹공, 심판 전원일치의 판정승을거두어 호조의 스타트를 끊는 金貞話선수는 지난 4월의선발전에서 劉沃均선수에게敗해 상처를 제압, 상위진출의 전망을밝게하고 있다. 황선수는 최종선발전에서 상대인 朴仁奎선수를 테크니컬녹아웃으로 넉다운시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바있다. 그리나 황선수는 父親이 黃선수의 出國서류관계로, 동분서주하다가 지난달 고속버스사고로 사망, 한때 침체했으나 이번 대회의 극복을로 아버님의 은혜에보답했다고 대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선수권대회 銀메달을

피사리君

이윤규

農村奉仕團 農村을 배우러간다

◇좌로부터 金澤根, 李鍾詰, 崔相基, 全柱成, 李政.

○ 해마다 放學에 많은 학생들이 農村奉仕活動 ○ ○ 을 떠난다. 올해도 本校生 10個 奉仕團 ○ ○ 3백여명이 農村봉사를 떠났다. 本社 ○ ○ 에서는 바람직한 奉仕活動을 위 ○ ○ 한 좌담회를 열고 참가자들의자 ○ ○ 세점검을 했다. 다음은 봉사활동에 ○ ○ 참여하는 학생들의 새로운 각오와 熱氣 ○ ○ 、를 종합했다. <編輯者 註>

▲司會=감사합니다. 大學生 奉仕活動을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그 어려운 點과 問題點등에대해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全=먼저 涉外活動을들 수 있겠읍니다. 물론구입 작 완공식등에 가면 왜 또 왔냐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앞고 보면 東大라는 이름으로 다른 써라는 이름으로 먼저 타간 적입니다. 大學別 공동 물품 구입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崔=涉外活動의 중요성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봉사활동의 자료를 찾다가 매우 애를 먹는 수도 많았읍니다. 자료가부족한데다가 또 그것이나마 불편한 형편입니다.

▲李=그러니까 參加 자체능력이 문제입니다. 事前踏査를 가 보면 學生으로서의 한계도 느껴지는데, 잠의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제한, 經濟的한계 등이 그것입니다.

▲司會=남사장 現地에서의 태도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李=특히 마을指導者들의 被動的인 눈도 그렇습니다. 현지의 토양, 풍습, 마을조직사항등에 대해서 조사할 때 서로를 자신의 利點만 골라서말

▲司會=文敎部의 自體敎育 내용에 어떤것이 있어야 되지요. 항상 되풀이되는 內容이고, 행사를 위한 봉사활동 같은 경향이 짙습니다. 또한 참가했던 각 써클대표에 의한 傳達敎育도 잘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司會=그런 입장에서 읍니다.

▲李=文敎部의 自體敎育 내용에 들어있어도 문제가 되지요. 항상 되풀이되는 內容이고, 행사를 위한 봉사활동 같은 경향이 짙습니다. 또한 참가했던 각 써클대표에 의한 傳達敎育도 잘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司會=그런 입장에서 읍니다.

▲李=특히 마을指導者들의 被動的인 눈도 그렇습니다. 현지의 토양, 풍습, 마을조직사항등에 대해서 조사할 때 서로를 자신의 利點만 골라서말

□參席者
李鍾詰(農研會長 農學4)
崔相基(MRA會長 電算3)
全柱成(PTP총무 體敎2)
司會=金澤根 記錄=李政 記者
場所=本社 會議室
때=7월2일

▲李=그러니까 參加 자체능력이 문제입니다. 事前踏査를 가 보면 學生으로서의 한계도 느껴지는데, 잠의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제한, 經濟的한계 등이 그것입니다.

▲司會=남사장 現地에서의 태도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李=그러니까 參加 자체능력이 문제입니다. 事前踏査를 가 보면 學生으로서의 한계도 느껴지는데, 잠의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제한, 經濟的한계 등이 그것입니다.

▲司會=남사장 現地에서의 태도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崔=처음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공동 물품 구입 등을 위한 共同機構 설치도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李=東大內의 각 써클에 하나하나統轄的인 計劃的으로 움직이는 奉仕活動이 중요겠군요.

▲司會=결론적으로 學校內에 共同機構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全=그건 공동물품구입에만 국한시킬게 아니라 봉사활동에 관한 모든제반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였으면 더욱 좋겠읍니다.

▲司會=長時間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因緣說

李相奉

어느날 꽃이 내게
질문을 퍼부어 왔다
어디가 아프시냐고

모래가 일어가는
여름날 볼볕
섬진강 독 보잘 것 없는 꽃의
오오, 물거품에 지워지는 저 물음

벼레, 나비 소리와
강물 흙는 소리와
기다란 알다리로 더위 식히는
나무들로 하여 和答 못 지였네

이제나, 저제나,
꽃은 藍빛으로 살고
밤중에 그 꽃이 내 旅宿으로 와
질문을 퍼부였다
귀가,
당신의 귀가 먹었느냐고

<師範大·國敎科>

獨自的 詩世界구축할터 — 詩壇에 登用된 李相奉君과

『생명지속의 수단으로 詩를 씁니다.』

月刊文學이 실시하는 신인상 詩部門에 「因緣說」이 당선되어 文壇에 데뷔한 李相奉(國敎·4)君의 말이다.

詩를 쓰겠다는 생각은 高校때부터 였으나 詩作에 몰두한 것은 大學入學 후부터라고 한다.

3년여 東大新聞社에서 일해 오면서 詩作에 몰두한 李君은 73년에 本社에 入社하여 記者를거쳐 編輯部長(76年)을 지낸 노력과.

『大學에 入學해서 詩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나워낙 무뢰한이라서 동인활동도 활발히 하지 않았지요. 그래 늘 3年만기다리라고 同人活動을 요구하는 高校同窓들에게말해 왔어요.』 이번 당선은 그로부터 3年만의에 적당한 기회에 발표하고 싶다고.

이번 당선작 「因緣說」은 작년 8月에 써 놓은 것. 李君은 그 외에도 40여篇의 作品을 가지고있다.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詩가 써지지 않을때 술을 마시는 따위의 재능(?)의에는 한 장애가 된다고.』

앞으로 교편을 잡으면서 계속 시를 쓸것이라며 世界를 내보이는 詩, 독창적인詩를 보인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 詩人의 운명인데 이에 비하면 저는 읽는데에는 돌라도 쓰는데에는 실격이었지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보충해가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심사평에서 높이 평가됐듯 「독창적이고 당당한세계」를 내보이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대학생활 4년이 特別히 자신의 시작 활동에 영향을 준 것은 없으나 3년여의 신문사생활을 통해 宋赫주간님의 지도로 비록 산문이나마 「글을 쓸줄」 알고 「글을 쓸줄」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단다.

<文>

◇李相奉君

詩作 3年만의 데뷔

"獨創的 노력이 壓到"

社會와 自身에 對한 體驗필요

『생명지속의 수단으로 詩를 씁니다.』

月刊文學이 실시하는 신인상 詩部門에 「因緣說」이 당선되어 文壇에 데뷔한 李相奉(國敎·4)君의 말이다.

詩를 쓰겠다는 생각은 高校때부터 였으나 詩作에 몰두한 것은 大學入學 후부터라고 한다.

3년여 東大新聞社에서 일해 오면서 詩作에 몰두한 李君은 73년에 本社에 入社하여 記者를거쳐 編輯部長(76年)을 지낸 노력과.

『大學에 入學해서 詩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나워낙 무뢰한이라서 동인활동도 활발히 하지 않았지요. 그래 늘 3年만기다리라고 同人活動을 요구하는 高校同窓들에게말해 왔어요.』 이번 당선은 그로부터 3年만의에 적당한 기회에 발표하고 싶다고.

이번 당선작 「因緣說」은 작년 8月에 써 놓은 것. 李君은 그 외에도 40여篇의 作品을 가지고있다.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詩가 써지지 않을때 술을 마시는 따위의 재능(?)의에는 한 장애가 된다고.』

앞으로 교편을 잡으면서 계속 시를 쓸것이라며 世界를 내보이는 詩, 독창적인詩를 보인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 詩人의 운명인데 이에 비하면 저는 읽는데에는 돌라도 쓰는데에는 실격이었지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보충해가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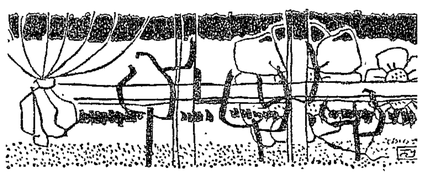
심사평에서 높이 평가됐듯 「독창적이고 당당한세계」를 내보이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대학생활 4년이 特別히 자신의 시작 활동에 영향을 준 것은 없으나 3년여의 신문사생활을 통해 宋赫주간님의 지도로 비록 산문이나마 「글을 쓸줄」 알고 「글을 쓸줄」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단다.

<文>

◇李相奉君

月刊文學 新人賞當選作



讀書 여행 여름 隨想

李有基 金鎭宅

메아리

「몬트리올」

住民과 精神的유대 중요

啓蒙위주의 目的意識 버려야

"諸般事項 다룰 綜合機構마련 시급"

韓國學研究 一輯

本校 韓國學研究所編

文學、地理등 폭넓은 論文

文化계승의 綜合的研究書

君主論

N·마키아벨리著 韓相範譯

正音文庫128 값三五〇원

(공고)

1976년 6月23日부터~25에 걸쳐시행된 제2회 고시반 선발고사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공고 한다

<사법시험반>

조민오 (경행1)	정영덕 (법2)
최병한 (법2)	정민배 (〃)
오세준 (〃)	박오순 (〃)
이성수 (〃)	김동진 (법3)
최은수 (행대1)	윤병각 (행대1)

<행정고시반>

최왕규 (행2)	박존엽 (행2)
서병춘 (경행2)	정동균 (경제2)
이재권 (정외2)	박병식 (〃)
조돈희 (행정3)	이상17名

고시반 지도위원회

위원장 최 요 환

社告

제14회 本社學術賞作品募集

그동안 東國人 여러분의 聲援에 힘입어 長足의 發展을 해온 本社 施賞 學術賞은 今年으로 14回를 맞게 되었읍니다.

學生들의 學究熱과 創作熱의 振作을 위해 制定된 本學術賞 作品募集에 적극 應募바랍니다.

◇學術賞 種目

▲人文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創作文學賞

※各分野別 장려상 있음

◇應募要領

▲人文社會科學·自然科學分野=2백字원고지 60枚內外 所屬學科學術論文에 限함

▲創作文學分野<詩> 5편이상<小說>60매이내 <戲曲>60매 이내

▲應募資格=本校 學生에 한함

▲심사위원=본사에서 위촉하며 當選作 發表와 함께 밝힘

▲施賞=各分野別 상장 및 상금 5만원

▲作品제출기간=9월15일부터 9월30일

▲當選作발표=10월중 本紙上

1976년 7월

東大新聞社

◎놓치면 一生一代의 損失!!

「마드리드」行 爆笑觀光特急列車 第3番發車 臨迫!

웃음의 魔術師 「레·사르로」四惡黨

★鬪牛場의 성난황소들도 이 미친親舊의 익살과 發狂때문에 웃어버렸다!

■무더위를 쫓는…

코메디中의 코메디!